

행복한 금요 편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명희¹⁾


공주대학교 교수

사랑하는 아들! 문과생이면서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느라고 여러 과목을 재수강하는 네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힘들었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끝내 난관(?)을 돌파하고 좀 긴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늦깎이 졸업을 정말 축하한다. 나는 이러한 네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조금은 행복한데 너는 어떤지 모르겠구나. 이제 새로운 진로를 향해 가고 있는 네게 오늘은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

먼저, 사랑하는 내 아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는 정작 '행복'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구나. 하지만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나'뿐만 아니라 너를 비롯한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맛보는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복 없이 평상심이 유지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엄마처럼 특별하게 성취한 것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별탈 없이 서로 아껴주며 잘 지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도 있을 거야. 또 일본의 '오타쿠'들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자신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이명희 교수님은 현재 공주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 중에 있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네게 이러한 주관적인 행복의 기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단다. 행복을 위해서는 실은 언제 닥칠지도 모를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협력 내지는 사회적 도움이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구나. 돌이켜보면, 네 행복했던 순간들도 결코 너의 개별적 노력으로서만 된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게다. 이점을 꼭 환기시키고 싶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덕으로 갖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지.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실제로 국제적인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너도 접했을 게다. 경제적·문화적 여건은 좋아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아버지는 그 이유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보았다.

하나는 공동체의 부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편중이라고 생각한다.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화와 세계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동체를 대신하여 각 개인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 사이버 상에서 가상공동체가 확산되고 있어. 그런데 가상공동체에서 사회적 관계는 피상적이지.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도 희박하고, 상호 통제력이나 구속력도 거의 미치지 않아. 따라서 개인들의 삶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교환성 속에서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어. 그 결과 모두의 무책임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것이 오늘날 불행의 한 원인이 아닐까?

아버지는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식·주의 문제와 교육·의료·문화·체육 등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오는 게 많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 정보가 매우 취약하다는 큰 문제점이 있거든. 먼 지역이나 외국의 정보는 흘러넘치는데, 정작 내 일상생활을 받쳐주는 지역정보가 없는 거야. 그 결과 기대치는 높아지는 반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정보와 수단이 없는 것이지. 이 때문에 불만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좋게 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지랖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들 각자가 살고 있는 사회,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조그만 실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봐. 예컨대 우리들 각자가 생활하는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즉, 우리들 각자가 지역사회의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자발적인 주체로 참여하기만 해도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어렵게 공부한 컴퓨터공학을 그저 일로서만 여기지 말고 네 행복과 함께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길 바란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과거에 대가족이나 전통적인 공동체에 의존하던 것을 대부분 시장을 통해 제공받고 부분적으로는 정부에 의존해 가고 있지.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자기 친화적으로 잘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시장이 우리들 각 개인에게 더 친화적이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거지. 특히, 온라인 속에서는 더욱.

애야, 시장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는 시장이라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친화적일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시장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과 시장이 상호 친화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온라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지털지역공동체'를 꿈꾸어본다.

♣ 감사합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